

광양시 “디지털 교육 중심지로 도약”

전남도 상설 디지털배움터 선정 강사·보조강사 등 상시배치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활용 “디지털 기술 쉽게 배울 기회”

광양시가 디지털 교육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광양시는 지난 5일 전남도 디지털배움터 교육 사업의 전남 동부권 상설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

혔다. 상설 디지털배움터는 강사와 보조강사를 상시 배치해 언제든지 방문하면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디지털배움터 위치는 광양 커뮤니티센터 1, 5층(광양시 중마로 410)이며 기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장 일부를 활용한다.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강사 등 인력은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분리인증과 공공서비스 활용 △금융 및 피싱 예방 △인공지능

(생성형 AI) 활용 △실생활 디지털 활용 (헬스케어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또 시민들이 간단한 핸드폰·컴퓨터 조작 등의 일상 속 디지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아이케어(AI 기반 눈 검진 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인바디측정기 등 건강 진단 디지털 기기를 배치한 테마형 체험존도 마련해 실생활에서 유용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상설 디지털배움터 외에도 지난해 운영된 디지털배움터 11개소 중 주요 교육장을 선정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용신 디지털정보과장은 “이번 상설 디지털배움터 선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더욱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화 사회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흥군 ‘관광 부문’ 대상 수상 2024 로컬콘텐츠페스타

장흥군이 ‘2024 로컬콘텐츠페스타’ 시상식에서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9일 kbc 본사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한 각 지자체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최근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치에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려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21일부터 23일까지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컬콘텐츠페스타’에 참가해 문화, 관광 자원, 특산물 등을 홍보했다.

지자체 홍보관에서는 장흥군 9경, 9미, 9품을 알리고, 지역 대표 축제인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로컬푸드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 행사, 장흥향장단 공연 등 로컬 콘텐츠를 알리는 데 노력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로컬콘텐츠 사례발표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는 “최근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자원과 친환경 특산품을 기반으로 한 장흥만의 로컬콘텐츠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참꼬막 자원회복사업 추진 보성군, 7500만 마리 살포

보성군은 지난 4일 참꼬막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참꼬막 인공 종자 약 7500만 마리(121kg/각 장 1.5mm)를 어촌계 등 양식장 5개소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참꼬막은 보성군의 대표적인 수산자원 중 하나로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별교꼬막으로 등록되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별배어업으로 채취되고 있다.

꼬막의 주산지인 보성군은 전남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했지만, 기후변화와 남획 등과 맞물려 1990년대 연간 2만톤에 이르렀던 생산량이 2010년 8500톤, 2023년 28톤으로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2021년부터 예산 약 15억원을 투자해 ‘별교꼬막 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한 참꼬막 인공 종자 3억2백만 마리를 보성군 해역에 살포하는 등 참꼬막 자원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참꼬막 생존율 모니터링을 매년 진행한 결과 2025년 겨울부터는 2021년에 살포한 참꼬막의 성패를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참꼬막의 가격 안정과 소비자 수요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여수 시전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경로당 냉방기 청소 봉사 활동

여수 시전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회장 정광조, 이은순)는 지난 8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관내 경로당 7개소를 방문하여 경로당 청소와 에어컨 필터 세척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시전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송현, 신흥, 모전, 공원, 기전, 응서, 응동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에어컨 필터와 선풍기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했고, 실내 청소를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광조 협의회장과 이은순 부녀회장은 “냉방기 청소로 실내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앞장서서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규준 시전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꼼꼼하게 청소해 주신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실 것”이라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이 지난 4일 참꼬막 인공 종자 약 7500만 마리를 어촌계 등 양식장 5개소에 살포했다.

보성군 제공

고흥군,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과 치유탐방’ 행사

유명 관광지 방문 등

고흥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보호자 24명이 참여하는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관장 송남중)에서 공감과 치유탐방을 통해 다양한 문화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신체적, 정신적 등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계기 마련을 위해 추진하였다.

이번 공감과 치유탐방은 인천과 충청도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과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흥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장애인과 보호자 24명이 참여하는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고흥군 제공

특히, 탐방 프로그램에는 평소 여행 기회가 많지 않아 쉽게 가보지 못한 인천 한중문화관, 역사박물관, 예당호 출렁다리 등 유명 관광지 방문과 더불어 다양한 여가 체험 활동이 포함되었다.

여행에 참여한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

애라는 불편함을 잠시 잊고 예당호의 흔들리는 다리 위를 느긋하게 걸으며 지친 마음이 위로되었고, 복지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줘서 더욱 감사했으며, 이런 소중한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순천시, 국가정원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순천시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천역에서 순천만국가정원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사진)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본노선 운행에 앞서 지난 5월 시민홍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원동문에서 오전그린광장까지 왕복 운행하는 체험노선을 운행한 바 있다.

올해 자율주행 운행이 지난해 정원박람회 기간 운행과 달라진 점은 기존 1대 임차 운행에서 2대로 증차했다는 점, 사전 체험노선 운영을 통해 지난해에 부족했던 홍보활동을 보완한다는 점이



다. 또한 하반기에는 기존 25km/h에서 40km/h로 속도향상을 통해 교통체증개선폰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운행은 매주 평일(월-금)

1일 9회,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점심시간 1시간 제외) 배치되어 오후 4시20분에 운영을 종료하며 왕복(순천역~국가정원 동문) 50분이 소요된다.

자율주행차는 국가정원 동문 버스정류장과 순천역 앞 자율주행 셔틀 정류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셔틀 정류장 안내판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예약 탑승하거나 배차시간에 맞춰 현장 탑승하면 된다.

또한, 시는 역에서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구간에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배치하는 등 1인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여수시립환경도서관

여수시립환경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의 알찬 방학 생활을 위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야기 미술회화 △어린이 동화 논술 2개 과정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매주 월·목, 강좌별로 6-8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이야기 미술회화’는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화책을 읽고 느낀 생각과 감정을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며, ‘어린이 동화 논술’은 1~2학년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글쓰기·토론·토의 활동을 통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강좌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7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yslib.yeosu.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별 20명 내외이며, 강좌별 수강료와 재료비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립환경도서관(061-659-48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